

갑오경장기의 어휘

宋 敏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머리말

갑오경장(甲午更張)이 몰고 온 문물 제도의 일대 변혁은 필연적으로 국어의 어휘체계에도 적지 않은 개신(改新)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이 시기의 어휘 개신은 주로 통상의 개방화에 따른 신식 외래 문물의 수용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갑오개혁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에 대한 문호개방의 결과였기 때문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신식문물과 그에 따른 신조어(新造語)의 유입이나 출현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뜻에서 필자는 개화기 전후를 배경으로 하여 생겨나게 된 신식 외래 문물 관계 신조어를 특별히 신문명 어휘(新文明語彙)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갑오경장기의 어휘체계를 논하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바로 신문명 어휘에 속하는 일련의 어휘군(語彙群)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당시의 어휘 개신을 주도한 대세의 일부 요인이 바로 신문명 어휘에 있었기 때문이다.

개화 초기 곧 1880년대 초엽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지식인들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각 분야의 서적을 통하여 새로운 선진 지식이나 신식 문물과 접촉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서양 문물의 개념이 담겨 있는 신조어 또는 번역어(翻譯語)가 그때 그때의 국어에 한자어(漢字語)로서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 국어 쪽에서 볼 때 중국어는 오랫동안 신문명 어휘의 공급처였던 셈이다. 17세기 초반의 '千里鏡, 自鳴鐘'이나 19세기 중엽의 '火輪船, 火輪車'와 같은 어휘가 그렇게 해서 국어에 유입된 대표적 사

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종 13년(1876) 조일 수호 통상 조약(朝日修好通商條約)의 체결로 일본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면서부터는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일본과의 직접적인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번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또는 번역어가 신문명 어휘로서 국어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령 1876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修信使) 金綺秀는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다양한 서구식 문물에 접하면서 신문명 어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실제로 그의 여행기록인 “日東記遊”나 “修信使日記”에는 그러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일본과의 교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고종 17년(1880)에는 金弘集이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 왔으며, 그 이듬해인 고종 18년(1881)에는 이른바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고종 19년(1882)에는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뒷수습을 위하여 수신사 朴泳孝가 일본에 보내 졌다. 고종 21년(1884)에는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났고 그 뒷처리를 위하여 특명전권대신 徐相雨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처럼 일본과의 교류가 날로 깊어짐에 따라 1890년대에 이르면 신문명 어휘의 공급처 또한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게 되었다.

결국 갑오경장기의 어휘개신을 주도한 대세의 일부는 분명히 신문명 어휘라 할 수 있지만, 그 발원지는 중국어일 경우도 있고 일본어일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어에 어렵지 않게 수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어형(語形)만으로는 발원지가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많다. 더구나 이들 신문명 어휘 중에는 일찌기 중국에서 만들어져 일본어에 수용되었다가 또다시 개화기의 국어에까지 유입된 경우도 적지 않았으리라고 추측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갑오경장기 전후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신문명 어휘를 중점적으로 정리하되, 그 중에서도 일본어를 통하여 국어에 유입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신조어 또는 번역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상을 잠시 살펴 보기로 한다.

II. 신문명 어휘에 대한 연구 동향

여기서 말하는 신문명 어휘는 외형상 한자어라는 특징을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성립과정이나 배경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개화기 이후 국어에 유입된 신문명 어휘의 거의 대부분은 근세일본어에 새로 등장하는 신조어로서 그중의 상당수는 서양제어(西洋諸語)에 대한 번역어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어도 실상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중국 고전에 이미 쓰인 바 있는 어형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면서 현대적 의미로 전용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령 고전적 어형에 서구문화적 개념이 가미된 '文明, 自由, 文學, 自然'과 같은 한자어는 전자에 속하지만, 완전한 번역어로서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진 '日曜日, 大統領, 哲學, 美術'과 같은 한자어는 후자에 속하는 유형이다. 신문명 어휘 중에는 서양제어로부터의 직접번역이 아닌 각국의 자체적 신조어도 많다. 가령 문물제도의 변혁에 따른 필요성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勅任, 奏任, 判任' 또는 '摠裁, 總務, 庶務'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摠辦, 協辦'과 같은 한자어는 자체적 신조어에 속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문명 어휘의 성립과정이나 배경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근래에 들어와 일본학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방법으로서서는 우선 특정 외국어에 대한 대역사전(對譯辭典)이나 번역서에 나타나는 신조어 또는 번역어를 찾아 검토해 나가는 일이다. 곧 어떤 외국어 어휘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조사하는 일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업적으로는 먼저 森岡健二(1969)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여기서 일본 명치 시대(明治時代, 1868-1912) 초기의 영일(英日) 사전류와 번역서에 나타나는 번역어를 일일이 정리해 보이고 있다.

佐藤喜代治(1971)도 부분적으로는 똑같은 방법을 이용한 업적이다. 그 후에도 이 방법은 進藤咲子(1981), 杉本つとむ(1983a) 등에 이용되었다. 한편 佐藤亨(1983, 1986)처럼 중국에서 이루어진 번역서에 눈을 돌려 명치 시대의 신조어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번역어가 상당히 많았음을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합어휘사적 방법은 어느 특정 시기의 번역어에 대한 성립과정이나 배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는 해 주지만, 어휘 하나하나의 어지(語誌)에 대한 개별적 검토까지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자면 개별 어휘사적 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廣田榮太郎(1969)는 그러한 개별 어휘의 어지적 검토를 통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둔 업적이었다. 그는 여기서 '그녀(彼女), 戀愛, 蜜月, 新婚旅行, 키스(接吻), 汽車, 汽船, 가방(鞵), 悲劇, 喜劇, 活動寫眞, 映畫, 世紀, 常識, 良識, 성냥(燐寸), 페이지(頁), 달러(弗), 클럽(俱樂部), 세비로(背廣, 양복), 冒險, 探險, 的(파생어 형성 형태소)과 같은 일본 어휘의 성립 과정을 정밀하게 밝혀 놓았다. 이와같은 개별어휘사적 방법은 齋藤毅(1977)로 이어지면서 문헌검색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東洋과 西洋, 合衆國과 合州國, 共和政治, 社會, 個人, 會社, 保險, 銀行, 哲學, 主義, 演說'과 같은 신문명 어휘의 성립과정과 배경에 대한 검토가 폭넓게 전개되어 있다.

鈴木修次(1981a, 1981b)도 똑같은 성격을 보여 주는 연구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우선 鈴木(1981a)에는 '文化와 文明, 經濟와 社會, 政治와 文學, 哲學과 理學, 心理와 物理'라는 어휘의 성립과정과 배경이 상세하게 밝혀져 있으며, 鈴木(1981b)에는 '三權分立, 權利와 義務, 科學과 眞理, 論理學, 命題, 演繹, 歸納, 宗教와 自由, 進化論'이라는 어휘의 성립과정과 배경이 검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어휘가 康有爲, 梁啓超, 嚴復, 章炳麟 등에 의하여 어떻게 중국어에 수용되었는지도 아울러 밝혀져 있다. 이밖에도 柳父 章(1982)에는 '社會, 個人, 近代, 美, 戀愛, 存在, 自然, 權利, 自由, 그(彼), 그녀(彼女)'와 같은 어휘의 성립과정 내면에 숨겨진 허실이 이모저모로 분석되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개별어휘사적 방법은 번역어 하나하나에 대한 정착 과정을 알기 쉽게 밝혀 주기는 하지만, 일부의 특정 어휘에 대한 개별적 검토에 그칠 수 밖에 없는 단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별어휘사적 방법의 한계점이나 앞에서 본 종합어휘사적 한계점을 동시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사전식 내지 해설식 어휘집이라고 할 수 있다. 朝倉治彦 외 3인(1970), 槌田滿文(1979, 1983), 杉本つとむ(1983b), 米川明彦(1983-4), 樺島忠夫 외 2인(1984) 등이 그러한 방법에 의한 성과로 꼽힐 수 있다. 주로 현대 일본어와 관계되는 어휘집으로는 奥山益郎(1974), 文化廳(1978), 見坊豪紀(1979, 1983) 등을 들 수 있으나, 여기에 수집되어 있는 어휘가 모두 신조어나 번역어와 같은 신문명 어휘는 아닐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이러한 아쉬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 어휘집이 惣郷正明의 1인(1986)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어휘집에는 명치시대 직전부터 직후에 걸치는 시기에 간행된 바 있는 각종 사전 360여종에 등장하는 번역어, 신조어, 외래어 등이 수집되어 있는데, 그 표제어수만 하더라도 1,341항목에 달한다. 각 항목 끝부분에는 어형(語形)이나 의미에 대한 검토가 곁들여져 있어 표제어의 성립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까지 다음과 같은 어휘집 또는 어휘 해설서가 세상에 나와 있다. 곧 榑原昭二(1986), 金若靜(1987, 1990), 惣郷正明(1988), 米川明彦(1989), 稻垣吉彦(1989), 大泉志郎의 2인(1993), 塩田九男(1994), 俵元昭(1994) 등이 그것인데, 이들 또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문명 어휘에 대한 이해를 도와 준다.

일본에서의 연구동향은 대략 이상과 같으나 국내에서의 연구성과는 아직도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徐在克(1970), 宋敏(1979, 1985, 1988, 1989, 1992), 李漢燮(1985, 1987) 등과 같은 일련의 성과가 없지는 않으나, 신문명 어휘가 현대국어의 어휘체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할 때, 개별어휘사적으로나 종합어휘사적으로나 앞으로는 좀더 활발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개화기의 신문명 어휘

신문명 어휘라고 여겨지는 신조어 중 일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한자어가 문헌에 나타나는 시기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1870년대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신문명 어휘가 더욱 더 확산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까지 연이어 나타난다. 1890년대에 이르면 일본을 발원지로 하고 있는 신문명 어휘가 중국을 발원지로 하고 있는 신문명 어휘를 거의 몰아낼 만큼 그 세력이 커진 가운데 갑오경장(1894)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경장관제(更張官制)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관직 명칭만 하더라도 그 상당 부분은 일본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 결국 갑오경장기에 이르러서는 신문명 어휘가 국가기관의 세부 조직 명칭으로까지 확산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제부터 여기서는 갑오경장 이전과 이후의 일부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신문명 어휘가 어떻게 수용 확산되었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더듬어 보기로 한다.

1. 갑오경장 이전

개화기의 국어에 유입된 신문명 어휘의 일부 실상에 대해서는 일찌기 恒屋盛服의 “朝鮮開化史”(東京: 東亞同文會, 1900: 320-1)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적이 나타난다.

명치27년 정나라에 대하여 선전(宣戰)의 조칙(詔勅)을 발(發)한 이래, 조선의 독립부식(獨立扶植), 문명개도(文明開導)는 일본 내지(內地)의 여론이 되었다.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도항(渡航)하는 자 적지 않았고, 또한 정치상의 세력으로 인하여 일본의 문화가 갑자기 반도에 들어가 정치, 학술 등의 숙어(熟語)에 일본의 역자(譯字)를 그대로 습용(襲用)하기에 이르렀다. 곧 主義, 目的, 自由, 權利, 義務, 進歩, 新聞, 株式, 會社, 協會, 銀行, 用達, 憲法, 演說, 社會, 植物, 動物, 化學, 運動, 開化, 輸出, 輸入, 豫算, 決算 등이 그것이다(원문은 일본어, 필자 번역).

청일전쟁(明治 27년, 1894) 이래 일본의 문화가 갑자기 반도에 들어오면서 정치, 학술 등의 용어에 일본의 '역자'(譯字)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증언인 셈이다. 이 때의 '역자'란 말은 대략 일본에서 태어난 신조어 내지 번역어 정도를 뜻하고 있어, 본고에서 이르는 신문명 어휘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위에 보인 인용문의 바로

앞면(p. 319)에는 '역자'라는 말 대신 '일본적 명칭'이라는 표현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문명 어휘는 일찍부터 개화기 전후의 국어에 수용되기 시작하여 점차 빠른 속도로 그 세력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몇몇 문헌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金綺秀의 “日東記游”(1876)

여기에는 수신사 金綺秀가 일본에서 직접 보고 들은 신식 문물과 거기에 대한 관찰식 해설이 여기저기에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문명 어휘도 나타난다. ‘蒸氣船, 汽車, 新聞紙, 人力車, 寫眞, 電線, 電信’과 같은 한자어가 우선 그러한 사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蒸氣船’을 찾아 본다.

바다 옆으로 도랑을 파서 바다물을 끌어들었는데, 넓이는 큰 배 십수 척을 용납할 만하고, 길이는 천여 보쯤이었다. 이곳은 水戰을 연습하는 장소였다. 그 가운데 한 척의 火輪이 있는데, 저들의 이른바 蒸氣船이었다(卷2 玩常).

金綺秀는 “日東記游”에서 ‘火輪船, 火輪之船, 火輪, 輪船’과 같은 어휘를 쓰고 있는데, 이들 ‘火輪船’계 어형은 물론 근대중국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나라 魏源의 “海國圖志”(全100권 중 前60권은 1842, 後40권은 1852) 권2에는 ‘火輪船’이 이미 나타나며(王力 1958 : 523), 근대중국어에는 그밖에도 ‘火輪舟, 火船, 輪船, 火烟船, 水氣船’과 같은 어형이 쓰였기(廣田榮太郎 1969 : 92-93) 때문이다. 근세일본어에도 ‘火輪船, 火船’이 쓰이지 않은 바 아니나, 그 주류는 역시 일본에서 신조된 ‘蒸氣船, 汽船’계 어휘였다. 막부(幕府)시대 말기의 일본 문헌에는 ‘蒸氣船(蒸汽船, 蒸氣船), 川(河)蒸氣船, 蒸氣舟, 蒸氣, 川(河)蒸氣, 小蒸舟, 汽船(瀛船, 小瀛船)’과 같은 어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명치시대 초기에는 이들이 어느 정도 정제되어 ‘蒸氣船(蒸汽船), 蒸船, 蒸氣, 汽船(瀛船, 氣船)’으로 나타나기에 이른 것이다(廣田榮太郎 1969 : 93-97).

결국 金綺秀는 ‘蒸氣船’이란 어형을 일본에서 처음 들었을 것이다. ‘저들의 이른바 蒸氣船이었다’(彼所謂蒸氣船也)라는 표현에 그 실상이 드러나 있다. 1881년에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던 李鏞永이 ‘瀛船’이라는 어형을 전하고 있으며(“日槎集略”問答錄 訪外務省卿井上馨問答), 다시 1882년에는 수신사 朴泳孝가 ‘汽船’이라는 어형을 알리고 있다(“使和記略”壬午 8月 10日). 이로써 일본에서 쓰인 바 있는 어형이 그때그때의 국어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汽車’란 신문명 어휘도 金綺秀가 일본에서 듣고 온 어형이다.

배가 橫濱港에 닿으면 상륙하여 汽車를 타고 東京으로 가게 되며(卷3 規條 館倭書 第8條).

귀하께서는 그동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汽車로 잠깐 동안 大阪府에 가셔서 우리의 造幣局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卷4 文事 往復文移 明治9년 6월 17일 外務卿 寺島宗則).

여기에 보이는 '汽車'는 물론 일본측 문서에 쓰인 어형이었다. 자연히 金綺秀는 그러한 문서를 통하여 일본식 신문명 어휘를 알게 되었을 것이며, '汽車'라는 어휘도 그 중의 한 가지 실례에 속할 것이다. '汽車'라는 어형 이전에는 '火輪車'가 쓰였는데, 이 말은 19세기 중엽 근대중국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海國圖志" 권83에 그 용례가 나타난다(王力 1958 : 524). 근대중국어에는 그밖에도 '火車'라는 어형이 쓰이기도 하였다(廣田榮太郎 1969 : 75). 이에 대하여 막부시대 말기의 일본 문헌에는 '蒸汽車, 蒸氣車, 蒸車'가 주로 쓰이다가 그 어형이 점차 '瀛車, 汽車'로 바뀌어 왔다고(廣田榮太郎 1969 : 76-90)한다. 그러므로 金綺秀가 일본에서 듣게 된 '汽車'는 바로 일본식 신문명 어휘였다고 할 수 있다.

'新聞紙'라는 어휘도 金綺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말이었을 것이다.

이른바 新聞紙는 매일 글자를 모아 찍는 것인데, 이것이 없는 곳은 없었다. 公私聞見과 길거리의 이야기가 입에서 침도 마르기 전에 나는 듯 사방으로 전해졌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삼았고, 여기에 당하는 사람은 영예나 치욕으로 여겼다. 또한 글자가 반드시 깨알처럼 작아서 정교함이 비할 데가 없었다(卷3 俗尚).

일본에서 일간신문이 간행되기 시작한 것은 1870년 12월 8일이었다. "橫濱每日新聞"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新聞'에 대한 일반 호칭은 한동안 '新聞紙'였다. 영어의 news paper를 충실히 옮긴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1875년 6월에 공포된 "新聞紙條例"에서처럼 '新聞'은 공식적으로도 '新聞紙'였던 셈이다(樋田滿文 1983 : 32). 金綺秀가 일본에서 경험하게 된 어형은 바로 당시의 일본식 신문명 어휘로서 널리 통용되던 '新聞紙'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얼마 후인 1881년 李鑣永은 일본인의 서한을 통하여 '新聞'이라는 어형을 접하게 된다("日槎集略" 散錄 田中武雄書). '新聞'이라는 어형 자체는 이미 중국 송나라 시대의 관보였던 "朝報"에서 쓰인 바 있다고 하지만(樋田滿文

1983 : 30). '新聞紙'나 '新聞'이라는 어휘의 의미는 일본에서 새로 다듬어진 신문명 어휘로서 국어에 유입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人力車'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을 태운 채 사람이 직접 끄는 이 이륜차는 1869년 和泉要助, 高山幸助, 鈴木徳之郎 등 세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듬해인 1870년에는 관청의 허가를 얻어 제조가 시작되었다(樋田滿文 1979 : 130-1, 樺島忠夫의 1984 : 167-8). 1874-5년경에는 거의 완전한 차체가 갖추어 졌고, 바퀴 또한 나무에서 철, 철에서 다시 고무로 개량되었다. 홍콩, 상해를 위시한 동남아 방면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人力車'는 일본의 상징처럼 유명해 졌다. 바로 그 무렵 金綺秀는 일본에서 '人力車'를 실제로 타보게 된다.

(延遠)館 앞에는 한없이 많은 人力車가 있었다. 이 수레는 두 바퀴인데, 바퀴 사이에 자리를 만들어 한 사람을 앉히는데 혹 두 사람이 앉게 되면 어깨가 서로 맞닿는다. 가리개는 뒤가 높고 양 옆이 낮다. 앞에는 가리개가 없다. 가리개에는 주름진 포장이 있어, 비가 오거나 별이 날 때 펴서 덮으면 곧 지붕이 있는 수레가 된다. 수레바퀴는 두 나무로 버티어 진 채 앞으로 뺐었는데, 格子에 멍을 만들었다. 이 격자 안에는 한 사람이 가슴으로 받쳐 밀고 달리니 빠르기가 나는 듯하였다(卷1 留館).

이로써 '人力車'란 일본식 신문명 어휘가 일찌기 金綺秀의 기록을 통하여 국내에 알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치시대 초기에는 일본에서도 사진술이 신기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 때문에 처음 한 동안 사진이 '寫眞繪'라고 불렸으나 점차 '寫眞'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고(樋田滿文 1983 : 32) 한다. 金綺秀는 어느날 기념 촬영을 하도록 권유 받지만 재삼 거절하여도 말을 듣지 않고 사진기를 설치하므로 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어느날 안내원이 와서 내 眞像을 찍자고 요청하기에(要寫余眞像) 재삼 거절하여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문득 보니 멀리 네모난 거울 한 개를 설치하고 이를 나무로 받쳤는데, 마치 우리 나라의 뜰에 있는 닭의 해 같았다(卷1 留館).

金綺秀는 여기에 '寫余眞像'이라고만 쓰고 있으나, 그는 분명히 '寫眞'이라는 어휘를 경험하고 있다. 외무경 寺島宗則이 예조판서 金尚鉉에게 보낸 회답서한(명치 9년 6월 17일자)의 예단물목(禮單物目)에 '寫眞帖 二冊'(卷4 文事 回書契)이란 항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金綺秀는 일본측에서 보내 온 문서를 통하여 '寫眞'이라는 새로운 어휘를 처음으로 듣게 된 셈이다.

공부성(工部省)을 방문한 金綺秀는 전신 시설을 돌아보았는데, 그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른바 電線이란 것은 자세히 살펴 보아도 또한 형용할 수가 없다……(중략)…
…공부성에서 이를 살펴 보니 電信의 線 끝이 집안에 들어가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舌鈴줄이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았다(卷2 玩常).

일본에서 전신사업이 시작된 것은 1869년이었다. 처음에는 영어의 telegraph를 그대로 음사한 '테레가라후'(テレグラフ)와 함께 '電信機'와 같은 명칭으로 통용되었으나, 점차 '電信機' 또는 '電信'이라는 어형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樋田滿文 1983 : 21-23, 惣郷正明의 1986 : 394-5). 金綺秀는 그러한 상황에서 '電線, 電信'과 같은 신문명 어휘를 일본에서 직접 듣게 되었을 것이다.

이밖에도 "日東記遊"에는 새로운 한자어가 꽤 많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에는 물론 일본식 신문명 어휘도 있지만, 전통적 어휘에 의미 개신이 가해진 것도 있다. 金綺秀가 일본에서 새로 경험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어휘의 일부를 그 출현 순서에 따라 잠시 정리해 보기로 한다.

卷1 : 辦理大臣(事會), 博物院 海軍省(이상 陰晴), 地方官 外務省 會社 鐵路關 陸軍省 教場 兵學寮 工部省 工學寮 師範學校 元老院(이상 歇宿), 機關 機輪 甲板 艦長 子午盤(이상 乘船), 浮木標 燈明臺 造幣局 鐵路 造船局 船長(이상 停泊), 雙馬車(留館)

卷2 : 鐵道 文部省 議事堂 議官 議長 議事 會議(이상 玩常), 法制長官 中將 開拓長官 書記生 軍醫 司法卿 宮內大輔 內務小輔 法制官 大審院判事 大佐 秘書官 書記官(이상 結識), 事務之官 文學寮 自立 外交(이상 問答)

卷3 : 公館 十字之牌(이상 宮室), 教育之院 萬國公法 專權大臣 專權公使(이상 政法), 監督員 斷髮 自由 巡警 醫療 醫官 健康 警察官(이상 規條), 學問(學術), 片錦譜 石炭油(이상 物産)

卷4 : 領事館 公事館 公使 獨立(이상 文事 往復文移)

이상과 같은 어휘는 당시의 국어로 볼 때 매우 생소한 한자어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들의 최초 발원지가 모두 일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金綺秀는 이들 어휘를 일단 일본에서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金綺秀는 신조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한자어도 꽤 남기고 있다. '驛樓(驛 건물 또는 대합실, 卷2 玩常), 氷汁(얼음 가루로 만든 빙수, 卷2 燕飲), 時鐘(괘중시계) 時針(회중시계, 이상 卷3 俗尚), 西人筆(만년필) 坐鏡 懸鏡(이상 卷3 物産), 井字板扉(하수구 맨홀 덮개, 卷4 還朝)'와 같은 한자어가 그것이다. 이들 중 '時鐘, 時針'의 발원지는 중국으로 짐작되지만, 그 나머지는 근원이 명확하지 않다. 어느 것이나 서양식 문물을 나타내고 있는 어휘여서 새로 만들어진 어형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2) 李鐮永의 “日槎集略”(1881)

金綺秀보다 5년 뒤에 일본에 건너간 李鐮永은 당시 일본의 고위관리, 지식인, 외교관 등을 폭넓게 만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 또한 신문명 어휘를 새롭게 경험하고 돌아왔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사례로는 '開化, 日曜日·土曜日, 大統領, 圖書館' 등을 들 수 있다.

명치유신(1868)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개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새시대를 대변하는 말로서 '文明開化'라는 번역어가 생겨났고(鈴木修次 1981a : 38-53), 이 말은 일대 유행을 불러일으켜, 당시 일본에 풍미했다고 한다(鶴田滿文 1983 : 26). 때마침 일본에 발을 들여놓은 李鐮永도 '開化'란 말을 자주 들었으나 그 뜻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橫濱港 大清理事署의 통역관이었던 일본인 林又六에게 그 뜻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르기를 “귀국땅에 들어와서부터 처음으로 開化라는 두 글자를 들었습니다. 開化가 무슨 뜻입니까?”하니 그(林又六)가 말했다. “開化란 서양 사람들의 말이며, 또한 일본 서생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의를 깨뜨리고, 옛풍속을 무너뜨려서 오늘의 洋風에 따르려고 피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고 옛풍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時俗에 통하지 못한다 해서 배척하니, 이것이 바로 서양 사람이 이웃 나라를 파멸로 몰아넣는 음모인데도, 조정의 대관들은 한 사람도 깨달아 아는 자가 없습니다(問答錄 橫濱港大清理事署譯員日人林又六來訪問答).

이렇게 전해진 '開化'라는 일본식 신문명 어휘는 곧바로 국내에도 확산되어, 이른바 開化期를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 '日曜日'이라는 개념이 알려진 것은 저들의 蘭學時代부터였다. 네덜란드어

zondag(일요일)가 일본인에게도 일찍부터 알려져 '손다쿠'(ソントク) 또는 '돈타쿠'(ドンタク)라는 음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日曜日'이란 어휘가 정착된 것은 명치시대 초기의 일이며(杉本つとむ 1983a : 131), 그 어형도 영어의 sunday에 대한 번역어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관립학교가 일요일 휴일제를 채택한 것은 1874년 3월이었고, 태정관포달(太政官布達)로 일요일 휴(休), 토요일 반휴(半休)가 된 것은 1876년 4월이었다(鶴田滿文 1983 : 20). 따라서 '日曜日, 土曜日'이란 어휘는 이 무렵부터 일반에 널리 사용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李鏞永은 일본에서 이들 어휘를 직접 들었을 것이다.

이날은 곧 일본인이 이르는 日曜日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음이 관례라 하므로 세관에 가지 않았다(日記 辛巳 6월초 1일)

그(何如璋)가 말했다 “……다음날 각하께서 왕림하시되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日曜土曜 양일의 오후 3點鐘 이후에는 비교적 조용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問答錄 與五衛將訪大清欽差大臣日本公使何如璋問答).

李鏞永과 何如璋은 다같이 '日曜日'이라는 어휘에 익숙하지 못했던 듯하다. 두 사람이 모두 '日曜日'이나 '土曜日'을 지칭하면서 '이른바 일본 사람이 이르기름'(日人所謂……)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로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하여튼 李鏞永은 일찍이 '日曜日, 土曜日'과 같은 일본식 신문명 어휘를 국내에 알린 셈이다.

'大統領'이라는 어휘도 李鏞永이 일본에서 듣고 온 말이다. 이말은 영어의 president에 대한 번역어로서 일본에서는 막부시대 말기부터 사용되었다(物郷正明 1986 : 349, 佐藤亨 1986 : 309-11). 李鏞永은 이 말을 신문기사에서 전해 들은 듯하다.

新聞紙에 米國 大統領이 총에 맞아 해를 입었다고 나와 있었다 한다(日記 辛巳 6월 초10일).

李鏞永은 '大統領'이라는 어휘 아래에 '곧 國王의 호칭이다'(即國王之稱)라는 세주를 베풀고 있다. 이것은 그가 '大統領'이라는 말의 개념을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때문에 이 어휘는 국어에 쉽사리 수용되지 못하였다. 그대신 president에 대한 음사형으로 '伯理璽天德'과 같은 어형이 한동안 문헌에 나타났다. 그러다가 고종29년(1892)부터는 '大統領'이라는 어휘가 “增補文獻備考”에 정식으로 쓰이기 시작한다(宋敏 1989 : 73-4). 李鏞永이 일본에서 이 어휘를 듣고 온 지 11년만에야 국어에

이 어휘가 비로소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사실일 것이다.

‘圖書館’이라는 어휘도 李鏞永에게는 아주 생소했던 모양이다. 그는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내가 이르기를 “공자의 사당 문 밖에 圖書館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하였다. 그(林又六)가 말했다. “오늘날 공자의 사당은 비록 폐지했지만 한문서적은 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뜻있는 자가 관청에 말해서 남겨둘 계획을 마련하고 圖書寮를 설치하여 책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問答錄 橫濱港大 清理事務譯員日人林又六來訪問答).

이 밖에도 “日槎集略”에는 李鏞永이 일본에서 알게 된 신식문물 관계 어휘가 허다하게 나타난다. 국어어휘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들 한자어의 일부를 출현 순서에 따라 예시해 보기로 한다.

聞見錄：蒸氣機關，中學，小學，公立，私立，懲役，歲入，證券，印紙，營業，豫算表，公債

日記 4月：陸軍工兵中尉(3일), 警部(8일), 稅務 畫學 醫學 化學 理學 長明燈 議長 副議長 祝辭 海軍中將(이상 12일), 社長 燈臺(이상 14일), 待合所 乘車 下車 電氣線 停車所 造紙局 紡績所(이상 17일), 監獄署 裁判所 未決 已決 博物院 療病院 郵便局(이상 18일), 造幣局 步兵(이상 19일), 砲兵工廠(20일), 博覽會 會社(이상 21일), 女學校 物理 盲啞院(이상 22일), 地稅 酒稅 商社(이상 26일), 太平洋(27일), 公園 商會(이상 28일)

日記 5月：支店(8일), 育種場(12일), 電信中央局 工作機械 乾葡萄(이상 13일), 軍樂隊(14일), 觀兵式(19일), 商業(23일), 文書課 收稅課 鑑定課(이상 24일), 檢査課 監視課(이상 25일), 目錄課 統計課 翻譯課(이상 26일), 會計(27일), 輸入(28일)

日記 6月：輸出(2일), 六穴銃(5일), 國立銀行局(19일)

日記 7月：寫眞(3일), 內務省 司法省(이상 4일)

問答錄：官用品 原價 巡查(이상 往神戶海關), 貿易 元價 時價 定價 貨物(이상 訪外務省), 法律顧問(訪關稅局長), 黨論 自主自權 國會(이상 訪外務省卿), 近代(이상 訪駿河台), 西洋(訪大清欽差大臣), 泰西(訪外務省), 稅目 西曆 從價稅 定額稅 免狀 納稅證書 免稅(이상 與關稅局長), 合衆國(與副關長), 工業(以書問答), 言

論(橫濱港大清理事署), 外交 自主之權 商業(이상 訪大清理事), 財政 委員(이상 橫濱港海關文書課員), 商法(往關稅局), 通關(訪朝鮮公使), 電報 入口稅 出口稅 農業(이상 訪大淸欽次大臣), 經濟 東洋(이상 訪中村正直), 追徵(往神戶與稅關長), 倉庫課 庶務課 年報冊(이상 往神戶海關與書記官), 警察所(往兵庫縣廳)

散錄: 輜重兵 士官學校 硝子製造所 議事堂 病院 講習所 養育院 小學校 銀行(이상 各官衙所管), 文藝 國旗 寒帶之境 六法(憲法 民法 刑法 治罪法 訴訟法 商法) 文明 政黨 思想 輿論 民權 自由 在野之紳士(이상 中田武雄書)

대략 이상과 같은 한자어들은 거의 대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후의 국어어휘 체계에 수용된 바 있다. 그만큼 李鍾永이 경험한 신식문물관계 어휘는 국어어휘사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존재들이다.

李鍾永이 전해 온 어휘 중에는 서양어의 음사형인 '襦袴(포르투갈어 gibão에서, 聞見錄), 簿記(영어 book keeping에서, 日記 5월 27일), 瓦斯局(영어 gas에서, 日記 6월 13일)'과 같은 어형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고유 일본어로 이루어진 '頭取(日記 4월 21일), 見習(日記 6월 17일), 買上品(問答錄 往橫濱港海館), 取締(問答錄 訪中村正直), 心得書(問答錄 往神戶海關與書記官)'와 같은 어형도 나타난다. "日槎集略"에는 그 밖에도 그 발원지가 분명하지 않은 한자어가 전한다. '麥末餅(빵, 聞見錄), 影帖(사진첩, 日記 4월 8일), 煤氣(가스, 日記 6월 13일), 鑿山通路(터널, 日記 4월 17일)'와 같은 한자어가 그것인데, 마지막 실례는 중국어 표현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3) 朴泳孝의 "使和記略"(1882)과 朴載陽의 "東槎漫錄"(1884-5)

여기에도 신문명 어휘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량은 그리 많지 않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들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한자어를 잠시 모아 보기로 한다.

"使和記略": 西洋料理(8월 9일), 出場所 停車場(이상 9월 2일), 參事院議長 內閣顧問 警視總監 依頼書(이상 9월 9일), 西曆(9월 14일), 大學校(9월 17일), 競馬場 夜會(이상 9월 20일), 動物園(9월 22일), 練兵場(9월 23일), 印刷局(9월 30일), 洋樂(10월 3일), 總務局長(11월 3일), 陽曆(11월 9일), 卷煙草(11월 17일)

"東槎漫錄": 銀行借款(1884년 12월 26일), 雙馬車(12월 28일), 郵遞局(12월 30일), 洋服(1885년 1월 6일), 休憩所(1월 15일), 贊美聲(洋樂名)(1월 19일), 懸迷鏡(1월 21일), 地震學(2월 4일), 終身懲役 卒業狀 印紙(이상 東槎記俗)

새로운 어휘가 적은 것은 이들 문헌의 절대분량이 크지 않은 데다가, 여기에 나타나는 신식문물 관계 한자어라도 그 대부분은 이미 金綺秀와 李鏞永이 먼저 경험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신문명 어휘의 상당수는 일찍이 1880년대 초엽에 이미 국어에 알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 갑오경장 이후

갑오경장을 계기로 하여 더욱 많은 신식 한자어가 빠른 속도로 국어에 확산되었으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추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사례 조사로서 李漢燮(1985, 1987)에는 “西遊見聞”(1895)에 나타나는 일본식 신문명 어휘가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는 또다른 측면에서 당시에 이루어진 신문명 어휘의 수용 사례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1) 更張官制(1894)의 官職名

조선왕조는 고종 31년 내외관제를 대폭으로 개혁한 바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경장관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장관제의 골격은 대체로 당시의 일본식을 모방한 것이어서 각급 관직명에는 신식 어휘가 크게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전통적 관제에 없었던 신설관직명칭 하나하나에는 당시의 일본식 명칭이 적지 않게 수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경장관제에는 ‘勅奏判任之別’ 곧 ‘勅任官, 奏任官, 判任官’이라는 일본식 3분법이 채택되었다. 이에 정1품에서 종2품까지는 칙임관, 3품에서 6품까지는 주임관, 7품에서 9품까지는 판임관으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增補文獻備考” 卷238에는 마침 고종 31년(1894)부터 광무 8년(1904)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진 관직 명칭의 변화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이를 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관직명칭에 반영된 일본어식 한자어를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의정부(議政府)나 원수부(元帥府)의 관명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개신 어휘로 채워져 있다. 그러한 실례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진다.

警衛院, 警務廳, 高等裁判所, 工兵隊, 公使館, 管稅司, 礦務學校, 軍樂隊, 宮內府, 貴族司, 騎兵隊, 法官養成所, 法律起草委員會, 病院, 士官養成所, 師範學校, 商工學校, 小學校, 侍從武官府, 領事館, 外國語學校, 郵遞司, 元帥府, 陸軍監獄署, 陸軍法院, 醫學校, 臨時博覽會事務所, 電報司, 中學校, 徵稅署, 參謀部, 鐵道院, 摠領事館, 輜重兵隊, 親衛隊, 通信司, 砲兵隊, 憲兵司令部, 會計院

여기에 나타나는 '監獄署, 博覽會, 法院, 司令部, 事務所, 養成所, 委員會, 裁判所, 參謀部'나 '工兵, 騎兵, 陸軍, 輜重兵, 砲兵, 憲兵' 등은 그 어형과 의미가 신칙이어서 전통적 한자어와는 전혀 다르다. 이들 대부분은 당시의 일본식 한자어가 고스란히 수용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신칙 어휘는 직명에도 허다하게 나타난다. 특히 의정부와 원수부는 그 직명의 대부분이 신칙 한자어로 채워져 있다. 그러한 직명의 윤곽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看守長, 監督, 監理, 監事, 建築局長, 檢査(官, 課長), 檢事(試補), 檢定課長, 檢察官, 經理局長, 警務(官, 使), 警察使, 工兵課長, 工業課長, 公使(館), 官報局長, 礦山局長, 教官, 教頭, 交步局長, 教員, 國債局長, 軍務局長, 軍法局長, 軍事課長, 軍需局長, 軍樂(長, 手), 旗官, 記錄(司, 局, 課長), 騎兵課長, 技師, 技手, 內大臣, 內事課長, 農務局長, 大隊長, 代理公使, 大臣, 武官(長), 文書課長, 民事局長, 翻譯(官, 課長), 歩兵課長, 副官, 副教官, 副教員, 副領事, 副元帥, 副議長, 副長, 副總裁, 副判事, 分隊長, 秘書(官, 課長), 山林局長, 山砲中隊長, 商工局長, 書記(官, 生), 庶務課長, 小隊長, 獸官, 首班判事, 水産局長, 視察官, 審査官, 野砲中隊長, 聯隊長, 領事, 豫備判事, 外務課長, 外事課長, 衛生局長, 委員, 醫官, 議官, 醫務局長, 議長, 議定官, 理事, 印刷局長, 銀行局長, 財務官, 裁判長, 電話課長, 廷吏, 製藥師, 製章局長, 助教, 調查課長, 主計局長, 主事, 主稅局長, 中隊長, 地理局長, 地質局長, 織造課長, 鎮防局長, 參理官, 參謀(長, 官), 參事官, 參書官, 鐵道(局, 課長), 摠監, 摠領事, 摠理大臣, 摠務(官, 局, 課長), 摠長, 摠裁, 摠辦, 出納課長, 親衛局長, 通商局長, 通商事務官, 通譯官, 特命全權公使, 辦辦公使, 判事(試補), 版籍局長, 編史局長, 編輯局長, 砲工局長, 砲兵課長, 海軍局長, 餉官, 協辦, 刑事局長, 會計課長, 會議員, 會辦

물론 이들 모두를 무조건 일본식 한자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그중에는 '摠辦'이나 '協辦'처럼 중국어 기원이 거의 확실한 한자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밖의 대부분의 경우는 적어도 국어의 전통적 한자어에 속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들 한자어의 거의 대부분을 일단 일본어 기원이라고 보더라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어휘에 따른 관직명의 위계구분(位階區分)이나, 일부 관직명에 나타나는 조어법은 분명히 일본식이라고 판단된다. 가령 '摠理大臣~大臣, 摠裁~副摠裁, 議長~副議長~議官,

局長~課長, 技師~技手, 聯隊長~大隊長~中隊長~小隊長~分隊長, 司令官~副官, 校長~教官과 같은 어휘대립은 틀림없는 일본식이며, '一長'이나 '副一'에 의한 파생어 생산 방식도 분명한 일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一長'에 의한 파생 관직명 '司長, 院長, 所長, 校長, 隊長, 館長, 局長, 課長'의 형태소 결합 방식은 어김없는 일본식이며, '副一'에 의한 파생 관직명 '副教官, 副議長, 副總裁, 副判事'의 형태소 결합 방식 또한 갈데 없는 일본식이다. 이처럼 경장관제의 관직명 내면구조에는 일본식 한자어와 그 조어법이 확실하게 침투해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경장관제에는 '外國旅行券, 勲位勲等, 年金, 勲章, 紀章, 褒章, 軍人, 軍屬, 司法, 行政, 恩赦, 復權, 判決, 不服, 上訴, 民刑事訴訟'과 같은 신식 한자어가 나타나는데, 이들도 대부분은 일본식 신문명 어휘에서 유래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2) 李鳳雲·境益太郎의 “單語連語日話朝傳”(1895, 京城: 漢城新報社)

이 책은 일종의 일본어 학습서로서 그 구성은 단어와 문장을 뽑아 국어와 일본어로 대역해 놓은 것이다. 다만 일본어 부분에는 일본어 문자가 쓰이지 않고 국어로 음사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신문명 어휘라고 생각되는 사례의 일부를 출현 순서대로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空氣공기, 電氣전기, 郵便局면지전환노집, 銀行所은행소, 電報局전보국, 理髮머리깎다, 寫眞사진, 大學校대학고, 小學校소학교, 內閣會議각회의, 權利권리, 鐵筆털필, 鉛筆연필, 印刷인찰, 切手편지부치는표지, 牛乳쇠젖, 煎油魚전유어, 針機바나질기계, 病院병보논집, 牛痘우두, 醫士의원, 南沸남비, 時械시계

일반적으로 학습서에 나타나는 어휘수에는 한정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위에 보인 실례는 당시에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던 신문명 어휘의 그야말로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들 어휘만으로도 몇가지 주목되는 사실이 밝혀진다. 우선 '郵便局, 理髮, 切手, 針機, 病院' 등은 한자어로서는 통용되지 못했음을 알려 준다. 후일 '郵便局, 理髮, 病院'만은 한자어 형태로 국어에 수용되지만, '切手, 針機'는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는 바람에 그 자체로는 국어에 정착될 수 없었다. '印刷'에 대한 발음 '인찰'이나 '時計'에 대한 한자표기 '時械' 또한 현대국어와는 다른 것인데, 이들은 신문명 어휘가 국어에 정착되기까지 거쳐 왔을 우여곡절을 암시해 준다. 다만 위에 보인 어휘의 대부분은 실상 그보다 앞선 문헌에 나타나는 사례들이어서 이렇다 할 새로운 존

재는 아니다.

그러나 위의 책과 같은 해에 이루어진 “國漢會語”(1895)에는 상당한 분량의 신문명 어휘가 수집되어 있다. ‘保險, 時計, 自縫針, 自主獨立, 自行車, 官報, 內閣, 大統領, 三枝鎗, 總督’ 등은 그러한 사례의 두드러진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책은 필사본일 뿐 아니라, 본문에는 추기(追記) 형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타나는 어휘가 한결같이 1895년 당시의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후대에 추가로 기록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國漢會語”에 나타나는 신문명 어휘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다.

(3) Gale, J.S.의 “韓英字典” *A Korean-English Dictionary*(1897), Yokohama, Shanghai, Hongkong and Singapore : Kelly & Walsh, Limited)

학습서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어휘의 극히 일부밖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좀더 포괄적인 어휘체계를 파악하려면 사전을 조사하는 방법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뜻에서 Gale의 “韓英字典”은 적절한 자료가 되어 준다. 우선 이 사전에서 신문명 어휘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뽑아 가나다순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각의閣議, 기화開化, 경찰관警察官, 경찰서警察署, 교회教會, 금성金星, 금요일金曜日, 기구氣球, 기선汽船, 기차汽車, 기각內閣, 니과內科, 니무부內務部, 대명수代名詞, 대서양大西洋, 대통령大統領, 대학교大學校, 티수代數, 전기電氣, 번보電報, 덩거장停車場, 독립국獨立國, 동물動物, 동물학動物學, 동양東洋, 디리학地理學, 디중지地中海, 레비일禮拜日, 론설論說, 륙군陸軍, 륙혈포六穴砲, 만리경萬里鏡, 목성木星, 목요일木曜日, 문법文法, 민주지국民主之國, 박물관博物院, 반공일반空日, 법관法官, 법률학法律學, 병원病院, 보험증서保險證書, 산소酸素, 사진寫眞, 상업학교商業學校, 서력西曆, 서반구西半球, 서양西洋, 성학聲學, 성학星學, 소학교小學校, 슈성水星, 슈요일水曜日, 순사巡查, 시계時計, 식물植物, 신문新聞, 안식일安息日, 연필鉛筆, 열띠熱帶, 온띠溫帶, 우편국郵便局, 월보月報, 월요일月曜日, 은행銀行, 의사醫師, 인력거人力車, 인지印紙, 일년柑一年柑, 장명등長明燈, 자동스自動辭, 독립지국自立之國, 주봉침自縫針, 주유지권自由之權, 주주지국自主之國, 주깁거自行車, 치판소裁判所, 전유어煎油魚, 접속스接續辭, 정치政治, 정치학政治學, 주일主日, 중립국中立國, 중학교中學校, 총리대신總理大臣, 타동스他動辭, 탄소炭素, 태평양太平洋, 천문학天文學, 천왕성天王星, 토성土星, 토요일土曜日, 하의원下議院, 한띠寒帶, 합중국合衆國, 히군海軍, 히

왕성海王星, 행성行星, 현미경顯微鏡, 협관協辦, 형용수形容詞, 화기국花旗國,
화성火星, 화요일火曜日, 화학化學, 회사會社, 흑인黑人

이상과 같은 어휘들은 우선 당시의 새로운 문물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종교, 제도, 천문, 지리, 신식문물에 걸쳐 있으며, 어휘체계로는 학문 명칭, 품사 명칭, 요일 명칭, 유성(遊星) 명칭 등이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중국식 한자어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류는 아무래도 일본식 번역어가 아닐까 한다. 이처럼 “韓英字典”은 당시의 국어에 수용된 바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IV. 맺는 말

갑오경장기 전후의 어휘개신을 주도한 세력은 다름아닌 한자어였는데, 이들은 주로 일본에서 유입된 신문명 어휘였다. 이들이 국어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생각보다 빨라 1880년대 초엽에는 이미 상당한 분량의 신문명 어휘가 국어에 알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에 다녀온 바 있는 지식인들의 기록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일본식 신문명 어휘는 더욱 빠르게 국어 속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경장관제(更張官制)의 관직명이나 당시의 교과서 및 사전류에서 그러한 증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신문명 어휘는 개화기 이래의 국어 어휘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는 현대국어에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金若靜(1987), 同漢字でも, 東京: 學生社.
 _____(1990), 續·同漢字でも, 東京: 學生社.
 徐在克(1970), “開化期の 外來語와 新用語”, 東西文化 4, 啓明大學校.
 宋 敏(1979), “言語의 接觸과 干涉類型에 대하여”-現代國語와 日本語의 경우-, 論文集 10, 聖心女大.
 _____(1985), “派生語形成 依存形態素 ‘一的’의 始原”, 于雲朴炳采博士還曆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_____(1988), “日本修信使의 新文明語彙 接觸”, 語文學論叢 7, 國民大 語文學研究所.

_____(1989), “開化期 新文明語彙의 成立過程”, 語文學論叢 8, 國民大 語文學研究所.

_____(1992), “開化期の 語彙改新에 대하여”, 語文學論叢 11, 國民大 語文學研究所.

王 力(1958), 漢語史稿(修正本), 北京:科學出版社.

李漢燮(1985), ““西遊見聞”의 漢字語について”-日本から入った語を中心に-, 國語學 141, 東京:國語學會.

_____(1987), ““西遊見聞”에 받아들여진 日本의 漢字語에 대하여”, 日本學 6, 東國大 日本學研究所.

朝倉治彦·安藤菊二·樋口秀雄·丸山信(1970), 事物起源辭典 衣食住編, 東京:東京堂出版.

稻垣吉彦(1989), 流行語의 昭和史, 東京:讀賣新聞社.

大泉志郎·大塚榮壽·永澤道雄(1993), 忘れてはならない 死語事典, 東京:朝日ソノラマ.

奥山益郎(1974), 現代流行語辭典, 東京:東京堂出版.

樺島忠夫·飛田良文·米川明彦(1984), 明治大正新語俗語辭典, 東京:東京堂出版.

見坊豪紀(1979), ことばのくずかご, 東京:筑摩書房.

_____(1983), 〈60年代〉ことばのくずかご, 東京:筑摩書房.

齋藤 毅(1977), 明治のことば, 東京:講談社.

榎原昭二(1986), 昭和語 60年世相史(朝日文庫 433), 東京:朝日新聞社.

佐藤喜代治(1971), 國語語彙의 歷史的研究, 東京:明治書院.

____編(1981-3), 講座日本語の語彙1-12, 東京:明治書院.

佐藤 亨(1983), 近世語彙의 研究, 東京:櫻楓社.

_____(1986), 幕末·明治初期語彙의 研究, 東京:櫻楓社.

鹽田丸男(1994), 死語讀本, 東京:白水社.

白石大二(1965), 國語慣用語句辭典, 東京:東京堂出版.

進藤咲子(1981), 明治時代語의 研究, 東京:明治書院.

杉本つとむ(1982), ことば의 文化史, 東京:櫻楓社.

_____(1983a), 日本翻譯語史의 研究, 東京:八坂書院.

_____(1983b), 語源의 文化史, 東京:開拓社.

鈴木修次(1981a), 文明のことば, 廣島:文化評論社.

_____(1981b), 日本漢語と中國(中公新書 626), 東京:中央公論社.

- 惣郷正明・飛田良文(1986), 明治のことは辭典, 東京:東京堂出版.
- (1988), 日本語開化物語, 東京:朝日新聞社.
- 俵 元昭(1994), 半死半生語集, 東京:學生社.
- 樋田滿文(1979), 明治大正風俗語典(角川選書·107), 東京:角川書店.
- (1983), 明治大正の新語・流行語(角川選書 63), 東京:角川書店.
- 飛田良文・呂玉新(1986), “中國語と對應する日本語を診斷する”, 日本語學 V:6, 東京:明治書院.
- 廣田榮太郎(1969), 近代譯語考, 東京:東京堂出版.
- 文化廳(1978), 中國語と對應する漢語(日本語教育研究資料).
- 宮地 裕(1982), 慣用句の意味と用法, 東京:明治書院.
- 森岡健二(1969), 近代語の成立 明治期語彙編, 東京:明治書院.
- (1978), “明治期の漢語”(文化廳, “ことば”, シリーズ 8 “和語漢語” 所收).
- 柳父 章(1982), 翻譯語成立事情(岩波新書 黄版 189), 東京:岩波書店.
- 横井忠夫(1973), 外來語と外國語, 東京:現代ジャーナリズム出版會.
- 米川明彦(1983-4), 近代語彙考證 ①~⑫, 日本語學 II:4-12, III:1-3, 東京:明治書院.
- (1989), 新語と流行語, 東京:南雲堂.